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3. 2. 2 (목)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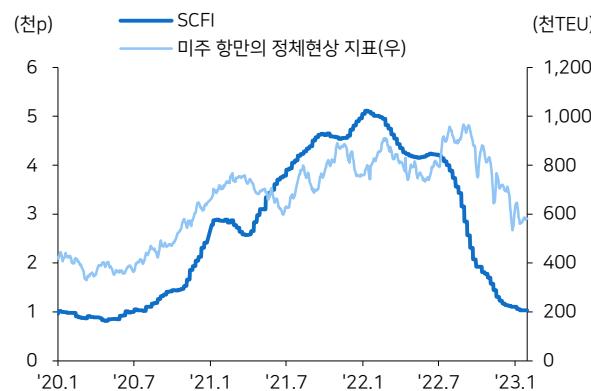
## 건화물운임(BDI)

668.0p(-1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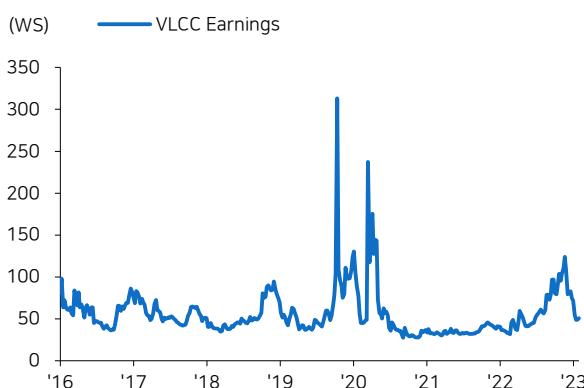
## 컨테이너운임(SCFI)

1,029.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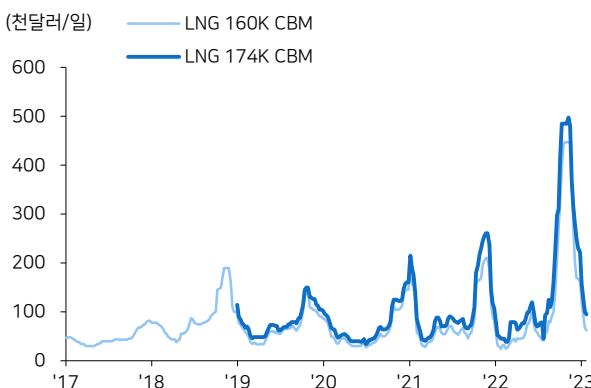


##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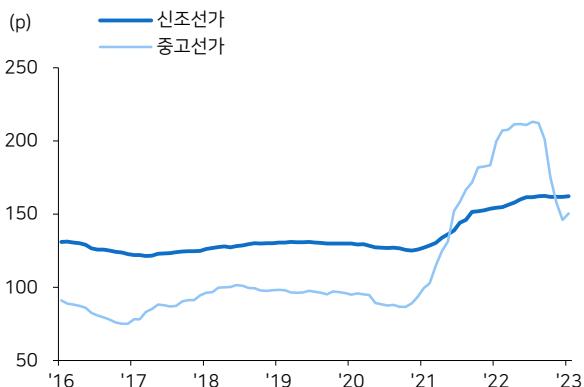
50.8p(+1.9p WoW)



## LNG Spot 운임

62.5p(-5.0p WoW)  
94.8p(-5.3p WoW)

##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2.7p(-0.0p WoW)  
150.3p(+0.0p WoW)

## 항공시장 지표

255.6p(-)  
106.8p(+0.2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CMA CGM splashes out \$2bn on large methanol-fuelled container ship orders

현대삼호중공업이 CMA CGM으로부터 2.5조원 이상(척당 1.71억달러)의 수주를 달성했다고 보도됨. 13,000TEU급 메탄을 추진 컨테이너선 1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함. 인도기한은 2026년 12월까지로 알려짐. (비즈니스포스트)

### MOL linked to two-ship LNG carrier order at Samsung Heavy Industries

삼성중공업이 MOL으로부터 6,097억원 규모(척당 2.48억달러) 수주를 달성했다고 보도됨. LNG선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함. 인도기한은 2027년 1월 중순으로 알려짐. 이번 수주 건은 한국 조선소의 첫 2027년 슬롯 판매로 알려짐. (연합뉴스)

### Chinese automaker Chery takes over domestic shipyard to build car carriers and bulkers

중국 자동차제조업체인 Chery가 자국 Samjin Shipbuilding Industries를 인수해 PCC 및 80,000DWT급 벌크선을 건조할 것으로 보도됨. 완전 가동 시 7.4억달러규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짐. (Tradewinds)

### Chinese newbuild orders becoming more diversified and greener, says Clarksons

중국에서 건조하는 선박 중 선종이 다양해지고, 친환경 선박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됨. 중국 선주들은 2022년 세계 최대 신조선 투자자로 최대 발주잔량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고 알려짐. 2022년 중국에 발주된 선박은 LNG선 24%, 탱커 및 벌크선이 26%로 LNG선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고 알려짐. 2022년 대체연료 추진선은 전체 발주 선박의 57% 수준으로 언급됨. (Tradewinds)

### Saudi Aramco's massive \$10 billion-plus expansion for world's largest offshore oilfield hit by fresh delays

중국에서 건조하는 선박 중 친환경 선박이 많아지고 선종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보도됨. 중국 선주들은 2022년 세계 최대 신조선 투자자로 최대 발주잔량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고 알려짐. 2022년 중국에 발주된 선박은 LNG선 24%, 탱커 및 벌크선이 26%로 LNG선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고 알려짐. 2022년 대체연료 추진선은 전체 발주 선박의 57% 수준으로 언급됨. (Tradewinds)

### OPEC+ "원유 생산 200만배럴 감산 유지"

OPEC+가 원유 생산량을 2022년 10월 결정했던 수준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석유 시장에서 중국 수요와 러시아의 공급 변화 추이를 지켜본 뒤 오는 4월 3일 생산량 변경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알려짐. 200만배럴은 세계 생산량의 2% 수준으로 언급됨. (한국경제)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